

## 성서적 입장에서 본 교회의 성장 원리

이 종 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고린도전서 3:6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나는 심었고 아불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말씀은 교회 성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교회 성장학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교회 성장학이니 혹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마는, 교회를 사람이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심고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학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 본고는 본 연구소 주최 제1회 교회성장세미나(1981.2)에서 행한 강연을 옮긴 것입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교회의 성장 원리 43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인간 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교회 성장학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간적인 측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즉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 인류학 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회 성장을 사람이 똑똑해서 혹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 성장은 하나님 이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좌해서 다른 면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①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강의를 돋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를 풀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적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내적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장 혹은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영역 안에서 불신자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째는 연장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개척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개척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선생님의 교회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는 한 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

국은 우리 지교회의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 교회를 확장하고 개척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할 때, 그것도 우리 교회 성장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② 이제는 우리가 교회 성장의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방법(biological growth)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남녀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유년 주일 학교를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성장하면 그 교회는 생물학적으로 수자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많이 생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전(transfer)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의 성도가 우리 교회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교회에서 B라고 하는 교회로 교인이 이전해 왔을 때, B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장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자체가 성장이 아니고, 그것은 교인의 이동밖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도시 교회의 성장이 농촌 교회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서울 교회나 도시 교회가 성장한 것 중에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사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 교회를 도와 줘야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째는 회심(conversion)의 원리인데, 이 회심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전도 할 때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방법이나 아니면 이전의 방법이나 아니면 불신자가 회개하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교회를 목회하실 때 이 세 가지 루트를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③ 동시에 교회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수가 양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은 이 세 가지를 뒤집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은 출생의 원리인데 이제는 죽어 버리면 교인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엄밀한 면에서 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 나라로 그들이 교적을 이전한 것뿐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인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양적 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교인 감소의 두 번째 원인은 이전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방법이라고 하면 대단히 안됐습니다마는 아동든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로 넘어갈 때에 본 교회는 줄어드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권리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교회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도전을 주지 못하는 설교를 한다거나 봉사의 기준이 낮아진다고 할 때에 그 교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라파의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 교회나 혹은 유럽에서는 만일 루터파에서 난 사람, 혹은 가톨릭에서 난 사람은 평생 동안 가톨릭이나 루터파에서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교파를 옮길 때에는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것이 구라파의 교구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개신 교회의 특징은 교구 제도를 창설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봉사의 기준이 낮거나 혹은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할 때는 교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목사가 전심 전력, 전력 투구를 해서 나도 그와 같은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원의 원리인데, 이것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이 세상으로 끌려나가 버리는 것으로 앞에 말한 회심의 반대말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 때문에 교인들은 감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④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방해물을 제거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앞에 안개가 끼거나 혹은 앞에 습기가 차서 유리창을 흐려 놓으면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했다가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진을 위해서는 앞의 안개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로버트 숀러 목사의 교회 성장의 원리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숀러 목사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분에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 분이 이런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시작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13년 전 개척 당시에 자기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장로님들은 자기 교회에 현재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을 시작했던 당시 그 장로님들을 아직까지 모시고 있다고 자

랑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당회를 다 해체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을 원하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몇 가지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로 잡혀 갔던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감사하는 심정으로 주춧돌을 갖다놓고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직업 문제, 혹은 자녀 교육 문제, 혹은 눈에 보이는 자기 문제들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이와같이 자기를 일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선권의 결여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선권을 잊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우선권을 상실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척 교회를 하는데 예배당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세워 놓고 여기에 우선권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의 봄 된 교회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

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자는 폼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사회적 관심을 가진 교회보다 복음 전도에 우선권을 둔 교회가 더 큰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는 미국에서 사회적 관심을 가진 교파들이 사회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진 교인들이 사회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오히려 사회적 관심을 우선권이라고 주장하는 교파는 개인적으로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교인수가 전체 교인의 2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음 전파를 우선권으로 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교인의 46%나 되는 교인들이 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간접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나타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사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신앙의 결여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말해서 신앙의 결여, 즉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신앙의 결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째로 종교의 직업화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professionalism입니다. 직업화된 종교인, 목사가 직업적으로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식적으로 자기 밥벌이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

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직업주의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에 불타고 참으로 눈물 흘리는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지, 그리고 봉사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직업이 돼가지고, 밥통이 되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눈치나 보고 있으면서 자기 밥통이 떨어질까봐 월급이 내려갈까봐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삼군 목자가 되고 맙니다.

네째, 비전의 결여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는 한 발짝을 앞서 보는 겁니다.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사이입니다. 지도자는 피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한발자욱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길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피지도자는 때로는 반발을 합니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도자의 결여입니다. 이것은 뼈저리게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기에 성경을 펴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을 보십시오. 4:1부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물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환상이 나타났는고 하니,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 일곱 등잔과 일곱 촛대가 있고 거기에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이 등잔으로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이 가지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등잔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감람나무에서 관을 통해서 기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갈 때 여기에 불꽃이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들어가는고 하니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감람나무에서부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박태선이가 아니라, 여기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모든 성경 학자들이 누구도 이의 없이 이것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불꽃을 비춰게 되는 것은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느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우리는 종종 잊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장 원리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성장이라고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몇 가지로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제가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방해물을 뛰어 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5 이하를 보면 복음이 유대 사회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8~7:60까지는 복음이 헬라주의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8:4, 5까지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벨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8:36~38에 보면, 복음이 이디오피아로 넘어갑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흑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10:1~11:18로 보면, 복음이 고넬료의 집에까지 전파된 것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11:19, 20에 보면 복음이 이방 사회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8:30, 31에 보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널리 전파되는 것으로 그리고 방해물이 없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1) 사도행전 2:5~11까지를 우리는 homogeneou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자기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단일 민족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사도행전 6:8~7:60에 보면, 복음이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희랍 사회로 헬레니스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Inter cultural이라 합니다. 복음이 문화를 뛰어 넘었다는 말입니다.

(3) 동시에 8:4, 5에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 천대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Inter social입니다. 그 계급 사회를 뛰어 넘었다는 말입니다. 양반 사회에서 상놈의 사회로 계급을 뛰어 넘는 복음입니다.

(4) 8:36~38에 보면, 복음이 흑인에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Inter racial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족을 뛰어 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 종족을 뛰어 넘어서 이제는 다른 족속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5) 계속해서 10:1~11:18에 보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Inter national입니다.

(6) 동시에 11:19, 20에 보면, 복음이 이방 사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Inter religion입니다. 복음이 이와같이 종교를 초월해서 다른 종교의 사회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7) 28:30, 31까지는,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장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시작할 겁니다. 한국 사람끼리만, 혹은 자기 친척끼리만, 혹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만, 자기와 경제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만, 혹은 자기와 지식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만 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의 장애를 뛰어 넘지 못하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우수하다든가 아프리카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열등하다든가 하는 우열이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서양에 처음 가시면 밥 먹을 때 포크를 오른손에 드는 건지 원손에 드는 건지 어디다 놓는 건지 모른다고 눈치 봐 가면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읍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젓가락질 못하는 거나 우리가 가서 칼질 못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우열이 없는고로 더더군다나 이 문화를 뛰어 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 계층을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나 혹은 누구에게든지 더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우리는 이 사회 계

층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종족적 장벽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오늘 부산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무시해서 이상한 별명을 붙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들에게까지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또한 국가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둘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성장 원리는 수적 성장(numerical growth)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수적인 관심을 지극히 갖고 있습니다. 누가가 수적인 관심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사도행전 전체에 수적인 것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15에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2:41에는 오순절 날에 3천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2:47에는 날마다 그 수가 증가하더라고 했습니다. 4:4에는 5천 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5:14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수가 점점 더해 가더라고 했습니다. 9:31, 12:24에서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 갔다고 했습니다. 16:5에는 계속해서 교회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그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무슨 여백이 많아서 120명이니 3천 명이니 하는 수자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고로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는 100명밖에 안 모이지만 옆의 5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진짜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정말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교회가 100명밖에 안 모이는데 자기 교회가 진짜라고 하면 왜 그 교회가 500명 교인을 못 만들었어요? 진짜 교인들이

보였으면 전도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수직 성장이 교회 성장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직 성장은 질적 성장과 병행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성장이 되는 교회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회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문 선명 같은 사람도 수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물론 제외가 됩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건전한 부흥은 수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한 가지의 원리는 지리적 확장입니다. 이 지리적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의 센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복음의 센타가 되어서 그 옆의 사마리아와 혹은 주변의 모든 도시들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센타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센타는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옮겨집니다. 에베소에서 이번에는 로마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확장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표입니다.

네째는 교회의 전체성과 포괄성입니다. 교회의 전체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중에 2:16-21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과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종과 여종 즉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2:14에 보면 계속해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집,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로 나타났습니다. 5:14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다 합쳤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다 합치면 인간 전부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17:4-12에 보면 교회의 멤버로서 여자가 계산되고

있읍니다. 21:5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언급되어 있읍니다.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7에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8:9에는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8:27에는 장관이 있읍니다. 9:39에는 과부가 있읍니다. 9:43에는 시장이 있읍니다. 10:1에는 백부장 즉 군인이 있읍니다. 13:7에는 총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16:14에는 장군, 자주 장사가 나옵니다. 16:27에는 로마의 간수장이 나옵니다. 17:34에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18:3에는 텐트 집는 사람이 나옵니다. 18:8에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심지어는 무당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군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확장,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질적 성장의 강조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교회 성장에 질적 성장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질적 성장을 가진 교회는 신앙과 사랑과 기쁨과 정직함과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랑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 주는고 하니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샤머니즘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받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복 달라고 하는 것, 기복 사상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복채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무당은 더 많이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자꾸만 더 많이 달라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래가 주는 종교이지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님께서 살과 피를 다 주신 것이 기독교이지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내 전부를 내어 주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고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와같이 자꾸 사랑이나 달라고 조르는 그런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즐거워 할 줄 아는,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서의 교회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⑥ 교회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41, 5:21, 8:3, 9:5 등의 구절들은 고난받는 것을 사도들은 합당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겨우 건축을 마쳤으니까 오늘부터는 다리 뺏고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일이죠. 목사는 십자가를 벗어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좋아가고 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는, 우리 선자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짊어지는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지 십자가를 벗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에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⑦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간이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천국 복**

음이 확장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